

광주도시철도 8년 적자 3000억원...무임손실 보전은 ‘하세월’

매년 350억원 이상 손실...영업이익도 코로나로 감소
 단일노선 한계·낮은 운임 체계·무임손실·코로나 악재
 무임손실보전 법제화 국회 계류...11월께 용역결과 주목

광주도시철도가 해마다 수 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임승차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을 메꿀 국비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만 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민선 6, 7기 8년 동안 도시철도 1호선 누적 당기순손실은 2960억원에 이른다. 연내 누적 적자 3000억원은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6억원, 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 2019년 357억원, 2020년 375억원, 지난해 366억원 등으로 해마다 35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용은 2014년 900억원에서 2021년 1116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수익은 2014년 140억원이던 것이 2019년 279억원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246억원, 2021년 245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만큼 영업손실폭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원한 예산도 3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9년 4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고질적인 수요 부족과 승승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운임 체계, 단일노선의 한계, 높은 무임손실에 코로나19까지 여러 요인들이 두루 영향을 미쳐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수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는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수년 내 2호선이 개통되면 적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등 해결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수 차례 채택했지만, 국가보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임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성 문제가 업연함에도 도시철도 무

임손실보전(PSO) 법제화를 촉구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수년째 계류중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뒤늦게나마 ‘도시철도 PSO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

역에 착수해 오는 11월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실효적 후속 조치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무임손실 비용만 2020년 63억원, 지난해 64억원에 이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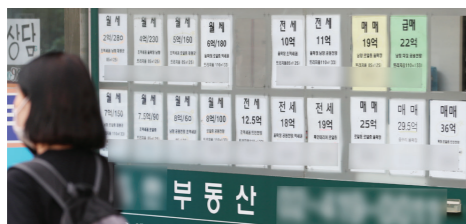
도”라며 “공익과 사회적 복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만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맥문동 정취 '만끽' 절기상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광주 북구 문흥동 천지인 문화소통길에 핀 맥문동 사이로 북구청 공무원들이 산책하고 있다.

역대급 월세 상승세에 자취생들 비명... “월급 중 30% 나가”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 수요와 함께 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2030 자취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취생들은 월세를 반전세나 전세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거나, 자취 생활을 접고 본가로 돌아가겠다는 청년들

도 늘어나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 상승 폭은 0.16%로 전월(0.16%) 상승 폭을 유지했다.

특히 2030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소형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성과와 과제’를 보면 오피스텔 주거 가구 전체의 62.3%가 2030 세대다.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 7월 102.57로, 표본이 작성된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

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 7월 월세 가격을 기준점인 100으로 놓고 순수 월세, 반전세 등을 합친 가격 변동을 담은 지수다. 2020년 7월 이후 단 한 차례 하락 없이 상승과 보합을 반복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40㎡ 이하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2를 기록해 이 지수의 통계가 작성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이 역시 2020년 3월 이후 단 한 차례의 하락도 없이 상승과 보합을 지속해왔다.

월세 상승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취생들 사이에서는 반전세를 선호하거나, 전세 자금

연립주택·오피스텔 월세 가격 상승세 장기화 자취생들, ‘월세→반전세’ 전환하거나 본가로

을 모으는 등 월세 부담을 줄이기에 애쓰는 모습도 보인다.

임모(28)씨는 6년째 본가를 떠나 서울에서 자취 중이다. 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집에서 살다가, 꾸준히 오르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 내는 반전세 집으로 옮겼다”며 “부모님 도움을 받아 죄송하지만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31)씨는 월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잠시 누나의 자취집에 머무는 중이다. 강씨는 “월세를 아껴서 반전세나 전세 자금

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미 월세로 월급의 25%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월세를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다.

월세 부담이 커 자취 생활을 접고 본가로 돌아간다는 이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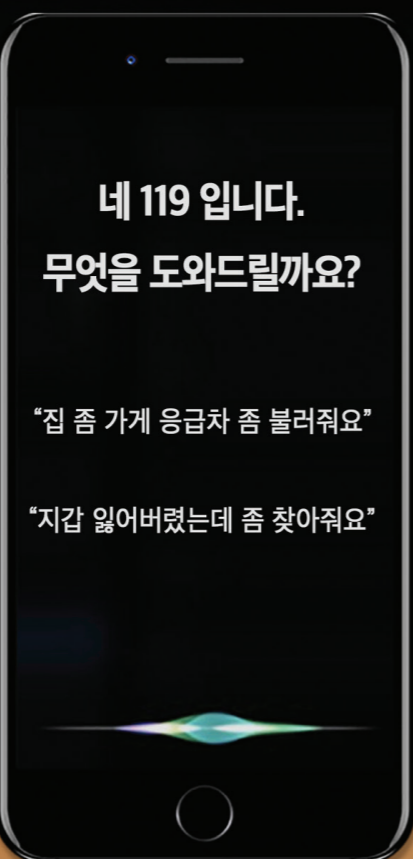
직장인 이모(24)씨는 월급 3분의 1 가까이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 그는 “1년 만에 월세가 10만원 이상 올랐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안 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려서 부담이 커졌다. 내년 안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본가로 돌아갈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뉴스1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